『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2월 12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4장 1-12절　　　　　　　　　설교제목 : "속죄제물을 삼아"

속죄제는 히브리로 핫타트입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레4:2-3) 우리는 대부분 알고 짓는 죄가 대부분입니다. 알고 짓는 죄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속죄 제사법에서는 고의로 저지르는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레위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등장하는 속죄제 규례에서는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선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민15:30) 그러나 레위기의 속죄제는 단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개 부지중에 지은 죄는 죄라고 여기지 않거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지중의 죄가 속죄제의 대상이면 어떤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가벼운 죄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가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짓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뿌려야 합니다.(레4:6) 본문에서 '여호와 앞'이란 여호와의 임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휘장 앞에서'에서 '앞에'라는 단어가 '파님'인데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휘장 앞에서'란 '하나님의 얼굴'이란 의미입니다. 두 표현 모두가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레4:3에 보면, **"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고 합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한 것을 다루는데, 본문은 대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범하는 죄가 대제사장 자신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까지 미치게 됨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죄가 파급효과를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참고 신5:9) 우리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전체를 멍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의 불씨가 온 집안과 공동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책임의 위치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다릅니다.**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다릅니다. 대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레4:3, 레4:13-14) 족장의 경우 숫염소입니다.(레4:22-23) 평민이 경우 암수염소, 암컷 양만 가능합니다.(레4:27-28, 레5:6)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가능합니다.(레5:7) 더불어 고운 가루도 가능합니다.(레5:11) 책임의 지위에 따라 제물의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책임의 지위가 무거울수록 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속죄제는 피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대상에 있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족장이나 평민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번제단에만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레4:25, 레4:30) 그런데 대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소와 성막안의 향단 뿔에까지 정결케 해야 합니다.(레4:6-7/레4:16-18)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성소의 휘장에 피를 뿌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이것은 그만큼 대제사장과 회중의 죄가 엄중하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의 죄는 더 엄중한 것입니다. **넷째로, 죄는 완전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속죄제사는 제물의 피를 찍어 성소 앞에서 일곱 번을 뿌려야 합니다.(레4:6) '일곱'이라는 '쉐바'는 히브리인들에게 완전함을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즉 이것은 완전한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속죄제사는 화목 제물처럼 모든 기름을 떼고 공팥과 간꺼풀을 번제단에 태웁니다.(레4:8-9) 이것은

회개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죄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의 참회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완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흘리기 까지 끝까지 싸워서 끊어야 합니다.(참고 마5:27-30) 죄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속죄제가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단 위에서 불살라 태워지는데, 속죄제의 제물은 진 밖에서 불살라집니다.(레4:11-12)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자기 피로써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히13:11-12) 결국 속죄제는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받는 것입니다.(요일1:9) 우리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려야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증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5:1) 그리고 2-4절까지는 몸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5:2-3), 소원하거나 맹세한 것을 안지켰을 경우(5:4)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면 누군과와 연관되어 속죄할 경우와 개인적인 속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속죄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레5:5-6) 종종 어떤 사람들은 죄용서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죄용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먼저 그 죄와 연관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먼저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자기 죄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먼저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용서함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죄의 처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대충 죄를 덮고 살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삶을 충만히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1) 속죄제는 어떤 때에 드려지는 제사인지 설명해 봅시다.(25절)
2) 속죄제는 제사자의 신분에 따라 드려지는 제물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3)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성소 앞에서 일곱 번을 뿌리고, 더불어 속죄제사는 화목제물처럼 모든 기름을 때고 콩팥과 간 꺼풀을 번제단에 태워야 합니다.(레4:8-9)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2) 속죄제의 중요한 원칙은 먼저 죄를 자백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지중에 죄를 지었으면, 먼저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